

한·중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의 공간 은유 표현 대조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을 중심으로-

후효단* · 구본관**

— < 次 例 > —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의 대조
- IV.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은 불확정한 경우의 대조
- V. 결론: 요약과 교육적 함의

I. 서론

상대량(相對量) 표현은 수량 표현 범주 중의 하나로 기준 수량과 대비되는 의미를 표시하는 언어 표현이다. 이런 언어 표현은 모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기준 수량보다 많은 경우의 언어 표현’과 ‘기준 수량보다 적은 경우의 언어 표현’, 그리고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은 불확정한 경우의 언어 표현’이다.¹⁾ 기준 수량보다 많은 경우의 언어 표현과 기준 수량보다 적은 경우의 언어 표현은 한·중

* 상해 외국어대학교 박사 과정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차체연구원(제1저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교신저자)

<http://dx.doi.org/10.17313/jkorle.2016..38.253>

1) 채옥자(2013)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부정적(不定的) 수량 표현’이라고 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모두 어떤 기준 수량을 참조하여 기준 수량과 대비되는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착안해서 이들을 ‘상대량(相對量) 표현’이라고 부르코자 한다.

언어 사용에서 흔히 대칭적인 존재로 나타나므로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합쳐서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서의 표현’이라고 하고자 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 연구할 수량 범주를 밝히고자 한다. 李宇明(2000: 30)에서는 객관적인 세계의 양을 표시하는 언어 범주로 주로 물량(物量), 공간량(空間量), 시간량(時間量), 동작량(動作量), 등급량(級次量), 태도강도량(語勢)이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범주는 물량, 공간량, 시간량, 동작량, 등급량이 있다. 물량은 사물(인간과 동물 포함)의 수량을 표시하는 양으로서 개체량과 비개체량으로 나눌 수 있다. 개체량은 주로 개체 하나하나의 수량을 표시하는 양이고 이에 반해 비개체량은 돈이나 식량 같은 집합 명사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공간량은 사물의 길이, 너비, 높이, 면적, 체적, 사물 간의 거리를 표시하는 양이다.²⁾ 시간량은 주로 기간과 나이를 표시하는 양이고 동작량은 동작의 횟수 등을 표시하는 양이며 등급량은 어떤 것의 등급이나 정도를 표시하는 양이다.³⁾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바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 다섯 가지의 수량 범주 중에서 상대량 표현에서 나타나는 공간 은유 표현으로 정하고자 한다.

공간 은유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은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Lakoff, George & Johnson, Mark(2003: 9)에 의하면 ‘은유의 본질이란 인간이 다른 사물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다(The essence of metaphor is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one kind of thing in terms of another).’ 그렇다면 공

2) 공간 위치와 공간량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물건의 위치 표현은 논하지 않고자 한다.

3) 등급량은 등급이나 점수, 속도, 온도 등 숫자로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양이다.

간 은유 표현이란 공간 위치의 개념으로 다른 영역의 개념을 표현하는 은유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은유 표현은 공간과 관련된 영상 도식의 사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임지룡(1997)에서는 6가지의 영상 도식(image schema)을 언급하였다. 즉 부분-전체 도식(part-whole schema), 중심-주변 도식(center-periphery schema), 연결 도식(link schema), 그릇 도식(container schema), 균형 도식(balance schema), 방향 도식(orientational schema)이다. 그중에서 ‘그릇 도식’과 ‘방향 도식’은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의 공간 은유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릇 도식’은 ‘안’과 ‘밖’, 그리고 ‘경계’의 구조로 이루어진 영상 도식이고 ‘방향 도식’은 ‘위-아래, 앞-뒤, 오른쪽-왼쪽’ 등의 방향과 관련된 영상 도식이다.⁴⁾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언어 상대량(相對量) 표현을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으로 나눠서 각각 분석하고 대조하고자 한다.

한·중 언어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 그릇 도식과 방향 도식의 사용에는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그릇 도식:

- (1) ㄱ. 앞으로는 매주 회의를 10번 이내^{*}이외⁵⁾로 해야 한다.
 ㄴ. 以后每周要开10次以内^{*}以外的会议。
- (2) ㄱ. 이 사람은 50세 안팎^{*}상하(으)로 보인다.
 ㄴ. 这人看起来有50岁^{*}内外/上下。

4) ‘부분-전체 도식’은 부분과 전체의 구조로 이루어진 영상 도식이고 ‘중심-주변 도식’은 중심과 주변의 구조로 이루어진 영상 도식이며 ‘연결 도식’은 두 개체의 연결 구조에 의한 영상 도식이다. ‘균형 도식’은 균형과 불균형의 대립적 영상 도식이다.
 5)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분하기 위해 한국어의 경우 한자어라도 한글로만 적고, 중국어의 경우 한자로 적는다.

방향 도식:

- (3) ㄱ. 속도는 10km/h 이상/이하.
 ㄴ. 速度在10km/h以上/以下.
- (4) ㄱ. 쌀값이 현재 3000원 전후/*좌우 하락했다.
 ㄴ. 米价现在下降了3000元*前后/左右.

(1ㄱ)과 (1ㄴ)은 한·중 언어 상대량(相對量) 표현 중에서 같은 그릇 도식을 쓰는 예이고 (3ㄱ)과 (3ㄴ)은 같은 방향 도식을 쓰는 예이다. (2ㄱ)과 (2ㄴ)은 한·중 언어 상대량(相對量) 표현 중에서 다른 그릇 도식을 쓰는 예이고 (4ㄱ)과 (4ㄴ)은 다른 방향 도식을 쓰는 예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나타나는 상대량(相對量)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밝히기 위해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대량(相對量) 표현 중에서 물량(物量), 공간량(空間量), 시간량(時間量), 동작량(動作量), 등급량(級次量) 표현과 어울릴 수 있는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은 무엇일까?

둘째, 중국어와 한국어의 공간 은유 표현들이 제각기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어울려서 상대량을 표시할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서로 대응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대응하지 않는가?

셋째, 한·중 상대량(相對量) 표현 중의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얻게 되는 교육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한·중 언어의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 은유 표현의 특징을 밝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교수-학습, 한국어권 학습자의 중국어 교수-학습과 같은 제2언어의 학습과 교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한·중 언어의 은유 표현의 특징과 대응 규칙을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교수나 교사들에게 활용된다면 효율적인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주로 언어 간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때 대조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와 중국어 자료는 말뭉치를 활용할 것이다. 언어 간 대조는 미시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수량 표현 중 상대량 표현을 세밀하게 대조하게 될 것이다. 먼저 ‘기준 수량 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와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의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이 각각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 공간 은유 표현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수량 범주가 각각 무엇인지도 밝히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공간 은유 표현이 다양한 수량 범주와 함께 쓰이는 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한중 언어의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 쓰이는 공간 은유 표현의 경향성과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예문들은 대부분 한국의 대표적인 말뭉치인 국립국어원 말뭉치⁶⁾와 중국의 대표적인 말뭉치인 북경대학교 말뭉치⁷⁾에서 추출하되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 것이다.

6)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

7)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

II. 선행연구

한·중 언어에서 공간 은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간어의 은유 용법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에서 상대량(相對量) 표현과 관련된 은유 용법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에 대한 연구, 중국어에 대한 연구, 한·중 대조 언어학적 연구에서 모두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어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의 공간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로는 劉性銀(2006), 이홍매(2010), 김해연(2013), 등의 연구가 있다. 劉性銀(2006)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위쪽과 아래쪽을 나타내는 공간어인 ‘위/아래’와 ‘上/下’는 주로 연령, 가격 등 수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홍매(2010)에서는 범위 한정 의 뜻으로 쓰인 ‘이상’, ‘이하’가 공간 은유의 용법에 적용되어 수량 범위에서 쓰인 경우를 제시하였다. 김해연(2013)에서는 ‘내외’와 ‘안팎’이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구와 동반하여 수량 기준에 약간 못 미치거나 또는 넘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고 밝혔다.

중국어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의 공간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로는 方经民(1987), 李宇明(2000: 102), 张豫峰(2004), 曾传祿(2005), 邢福义(2010) 등의 연구가 있다. 方经民(1987)에서는 공간어 ‘内’와 ‘外’가 수량을 표시할 수 있는 용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李宇明(2000: 102)에서는 중국어 수사와 분류사가 공간어와 함께 쓰여서 ‘수사와 분류사+공간어’라는 언어 형식이 형성되어 수량을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공간 표현은 ‘左右’, ‘上下’, ‘前后’, ‘以上’, ‘以下’, ‘以内’, ‘之内’, ‘外’, ‘开外’, ‘以外’, ‘之外’ 등이 있다고 밝혔다. 张豫峰(2004)에서는 ‘前后/左右/上下’가 수량 개념을 표시하는 경우의 용법을 밝히고 그들의 인지적 의미도 밝혔다. 曾传祿(2005)에서

는 ‘內’, ‘以內’, ‘之內’와 ‘外’, ‘以外’, ‘之外’가 각각 기준 수량보다 적음이나 많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邢福义(2010)에서는 ‘X或X以上’가 기준 수량 X보다 많음을 표시하는 용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X’에 해당하는 언어 형식이 대부분은 ‘수사+분류사’라고 밝혔다. 분류사는 주로 물량 분류사(物量詞), 계량 단위 분류사(度量衡量詞), ‘年, 岁’와 같은 분류사, 행위성 분류사 ‘次’ 등이 있다.

한·중 대조 언어학적 연구로는 劉性銀(2006)와 풍정정(2015) 등의 연구가 있다. 劉性銀(2006)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간 개념 은유의 은유 방식을 밝히기 위하여 비교 수량 개념의 공간성 은유 표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중국어의 ‘上/下’와 한국어의 ‘위/아래’라는 공간 개념은 구체적인 수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히고 예문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 상대량(相對量) 표현 중의 공통점만 밝히고 있어 아쉽다. 풍정정(2015)에서는 한국어 공간어 ‘위/아래’와 중국어 ‘上/下’의 의미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고, 공간 은유 표현인 ‘위/아래’와 ‘上/下’가 수량 범주에 적용된 사례를 언급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 중국어에 대한 연구, 한·중 대조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 공간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어느 하나의 공간어가 상대량(相對量) 표현 범주에서 쓰일 수 있다고 밝히는 데에 그치고 있다.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의 공간 은유 표현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성과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언어의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 공간 은유 표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조하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적인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Ⅲ.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의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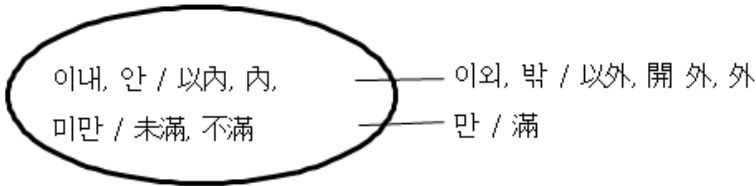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중 언어의 상대량(相對量) 표현은 주로 ‘기준 수량보다 많은 경우의 언어 표현’과 ‘기준 수량보다 적은 경우의 언어 표현’, 그리고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은 불확정한 경우의 언어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기준 수량보다 많은 경우의 언어 표현과 기준 수량보다 적은 경우의 언어 표현이 한·중 언어 사용에서 흔히 대칭적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합쳐서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의 표현’이라고 한다. 본 장에서 주로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의 표현’과 관련된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그릇 도식 표현을 보자.

1. 그릇 도식 표현의 대조

그릇 영상 도식 중에서 기준 수량은 그릇의 경계에 해당한다.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물체가 그릇에 있는 대칭적인 위치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릇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릇의 경계에 못 미치는 것과 그릇의 경계에 미치는 것이다. 기준 수량보다 많으면 그릇 외부에 위치하는 것에 해당하고 외부와 관련된 한국어의 ‘밖’과 ‘이외/외’, 중국어의 ‘外’, ‘以外’, ‘开外’로 표시한다. 기준 수량보다 적으면 그릇 내부에 위치하는 것에 해당하고 내부와 관련된 한국어의 ‘이내’, ‘안’, 중국어의 ‘以内’, ‘内’⁸⁾로 표시한다. 그리고 어떤 기준 수량에 미치면 그릇 경계에 달

8) 이 밖에 ‘일정한 범위 안’의 의미를 가지는 ‘之内’가 있다. ‘之内’는 범위 범주에서 쓰

하는 것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만’과 중국어의 ‘滿’으로 표시하고 어떤 기준 수량에 미달하면 그릇 경계에 못 미치는 것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미만’과 중국어의 ‘未滿’, ‘不滿’으로 표시한다. 이 그릇 영상 도식은 아래의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1]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의 표현’과 관련된 그릇 도식 표현

이 절에서는 주로 그릇 외부와 내부와 관련된 표현과 그릇 경계에 미치거나 못 미치는 경우와 관련된 표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그릇 외부와 내부와 관련된 표현의 대조

(1) ‘이외/이내’와 ‘以外/以內’의 대조

‘이외’와 ‘이내’는 각각 ‘以外’와 ‘以內’에 서로 대응하는 한자어이다. 그리고 ‘이외’와 ‘이내’, ‘以外’와 ‘以內’의 의미는 정반대로 서로 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외’와 ‘以外’, ‘이내’와 ‘以內’가 각각 어떤 수량 범주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는지, 서로 대

이는 경향성이 강하고 수량 범주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응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5) ㄱ. 논문의 글자 수를 5000자 *이외/이내로 정해야 한다.
 ㄴ. 论文的字数要控制在5000字*以外/以内。
 ㄷ. 축의금은 3만원 *이외/이내로 정할 것이다.
 ㄹ. 随礼钱我打算给3万元*以外/以内。
- (6) ㄱ. 거실의 길이를 10m *이외/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ㄴ. 我打算将客厅的长度定为10米*以外/以内。
- (7) ㄱ. 입사한 지 3년 *이외/이내인 직원은 이번에 승진할 기회가 있다.
 ㄴ. 进公司三年*以外/以内的职工这次有升迁的机会。
- (8) ㄱ. 앞으로는 매주 회의를 10번 *이외/이내로 해야 한다.
 ㄴ. 以后每周要开10次*以外/以内的会议。
- (9) ㄱ.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이외/*이내의 학생은 서울대의 석사를 지원할 수 있다.
 ㄴ. 韩语等级考试5级*以外/*以内的学生可以申请首尔大学的硕士。

예문 (5)는 ‘이외’와 ‘이내’, ‘以外’와 ‘以内’가 물량 표현과 함께 쓰인 것인데 그 중에서 (5ㄱ)과 (5ㄴ)은 ‘이외’와 ‘이내’, ‘以外’와 ‘以内’가 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5ㄷ)과 (5ㄹ)은 비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6)은 ‘이외’와 ‘이내’, ‘以外’와 ‘以内’가 공간량 표현, (7)은 시간량 표현, (8)은 동작량 표현, (9)는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예문을 보고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이내’와 ‘以内’, ‘이외’와 ‘以外’가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이외’와 ‘이내’, ‘以外’와 ‘以内’의 사용에 비대칭적인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즉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이내’와

‘以內’의 사용은 가능한 반면, ‘이외’와 ‘以外’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문에서 보았듯이 ‘이내’와 ‘以內’가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서로 대응한다.

(2) ‘밖/안’, ‘외/내’와 ‘外/內’의 대조

‘밖’과 ‘안’은 각각 ‘外’와 ‘內’에 서로 대응하는 고유어이고 ‘외’와 ‘내’는 각각 ‘外’와 ‘內’에 서로 대응하는 한자어이다. 그리고 ‘밖’과 ‘안’, ‘외’와 ‘내’, ‘外’와 ‘內’의 의미는 정반대로 서로 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밖’과 ‘안’, ‘외’와 ‘내’, ‘外’와 ‘內’가 각각 어떤 수량 범주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는지, 서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10) ㄱ. 논문의 글자 수를 5000자 내/안/*외/*밖(으)로 정해야 한다.
 ㄴ. 论文的字数要控制在5000字内/*外。
 ㄷ. 한 달의 대출 금액을 2백만원 내/안/*외/*밖(으)로 정해야 한다.
 ㄹ. 一个月的贷款金额要控制在200万元内/*外。
- (11) ㄱ. 전선 길이가 10m *내/*안/*외/*밖/이내(이)면 가격은 m당 천 원이다.
 ㄴ. 长度为10米*内/*外/以内的电线的价格是每米1000元。
- (12) ㄱ. 일주일 내/안/*외/*밖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ㄴ. 一周内/*外要把报告书提交上来。
 ㄷ. 시력 교정 수술은 12세 내/*안/*외/*밖에 해야 한다.
 ㄷ'. 시력 교정 수술은 열 두살 *내/안/*외/*밖에 해야 한다.
 ㄹ. 视力矫正手术最好在12岁内/*外进行。
- (13) ㄱ. 이런 돌은 쇠석기로 500번 *내/*안/*외/*밖/이내 쇠석되면 된다.
 ㄴ. 这种石头用碎石机碎石500次*内/*外/以内就行。

(14) ㄱ. 이번 회의는 전국 10위 내/안/외/밖의 기업들이 모두 참가하였다.

ㄴ. 全国排名10名内/外的企业都参加了本次会议。

(10)의 예문들은 ‘밖’과 ‘안’, ‘외’와 ‘내’, ‘外’와 ‘内’가 물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10ㄱ)과 (10ㄴ)은 ‘밖’과 ‘안’, ‘외’와 ‘내’, ‘外’와 ‘内’가 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10ㄷ)과 (10ㄹ)은 비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11)은 ‘밖’과 ‘안’, ‘외’와 ‘내’, ‘外’와 ‘内’가 공간량 표현, (12)는 시간량 표현과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12ㄱ)과 (12ㄴ)은 ‘밖’과 ‘안’, ‘외’와 ‘내’, ‘外’와 ‘内’가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12ㄷ)과 (12ㄹ)은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13)은 ‘밖’과 ‘안’, ‘외’와 ‘내’, ‘外’와 ‘内’가 동작량 표현, (14)는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12ㄷ, ㄹ)에서 볼 수 있듯이 ‘내’의 경우는 한자어 상대량(相對量) 표현과 어울리고 ‘안’의 경우는 고유어 상대량(相對量) 표현과 어울리는 것도 특징적이다.⁹⁾ (13)에서 볼 수 있듯이 ‘밖’과 ‘안’, ‘외’와 ‘내’, ‘外’와 ‘内’가 모두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으며 (14)에서 볼 수 있듯이 ‘밖’과 ‘안’, ‘外’와 ‘内’, 그리고 ‘내’는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외’는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다.

예문에서 보았듯이 ‘내’와 ‘内’가 물량, 시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공간량, 동작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다. 그중

9) 한국어의 경우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한자어인 ‘12세[십이세]’와 고유어인 ‘열두살 [열두살]’이 있다. ‘십이’가 ‘세’와 결합하고 ‘열두’가 ‘살’과 결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자어 표현 뒤에서는 ‘내’가, 고유어 표현 뒤에서는 ‘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이런 경향과 통하는 것이다. 고유어 수 표현과 한자어 수 표현의 차이를 뒤에 오는 요소와 관련하여 논의한 것에는 고영근·구본관(2008: 79-81) 등이 있다.

에서 ‘내’와 함께 쓰인 시간량 표현은 기간량 표현과 한자어 연령 표현이다. ‘안’은 물량, 시간량(기간량과 고유어 연령 표현),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고 ‘밖’과 ‘外’는 등급량 표현과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외’는 그 어느 표현과도 함께 쓰일 수 없다.

이들의 용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밖’안, ‘외’내와 ‘外’내의 용법

		내	안	内	외	밖	外
물량	개체량	○	○	○	×	×	×
	비개체량	○	○	○	×	×	×
공간량		×	×	×	×	×	×
시간량	기간	○	○	○	×	×	×
	연령	○(한자어)	○(고유어)	○	×	×	×
동작량		×	×	×	×	×	×
등급량		○	○	○	×	○	○

(3) 중국어 ‘開外’

한편 중국어에는 ‘外’라는 형태소를 포함한 단어 ‘開外’가 있다. ‘開外’는 공간 위치를 표시할 수도 있고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開外’와 대응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開外’는 단독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5) ㄱ. 我国智力优秀者有一千万开外。
 ㄴ. 北京的狗市，一条叭儿狗售价 500元开外。
- (16) 这是李敖先生的工作间，50平米开外的房间里满眼可见的是书。
- (17) ㄱ. 时间虽然已隔十年开外，发现他除了增加几道皱纹、平添几缕银发外，精力还是那样充沛。
 ㄴ. 但是阿骨里武功差，年岁已五十开外。

(18) 每年的见面次数在50次开外。

(19) 论人数, 凌钢在全国钢铁企业群里, 几乎都排名40开外。

(15)는 ‘开外’가 물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인데 그중에서 (15ㄱ)은 ‘开外’가 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15ㄴ)은 ‘开外’가 비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16)은 ‘开外’가 공간량 표현, (17)은 시간량 표현, (18)은 동작량 표현, (19)는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17ㄱ)은 ‘开外’가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17ㄴ)은 ‘开外’가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예문에서 보았듯이 ‘开外’는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다.

2) 그릇 경계에 미치거나 못 미치는 경우와 관련된 표현의 대조

‘만’과 ‘미만’은 각각 ‘满’과 ‘未满’에 대응하는 한자어이다. ‘만’과 ‘미만’의 용법은 서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만’과 ‘미만’, ‘满’와 ‘未满’를 함께 다루지 않고 ‘만’과 ‘满’, ‘미만’과 ‘未满’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만’과 ‘满’의 대조

‘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满’과 대응하는 한자어지만 품사와 용법에 있어 ‘满’과 많이 다르다. ‘满’은 상대량(相对量)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그 품사가 주로 동사이고 일정하게 정해진 수량이 가득 참을 이르는 말이다. 이에 비해 ‘만’은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그 품사가 명사 혹은 관형사이다. 명사로 쓰일 때는 주로 ‘만으로’ 꼴로

쓰이고 관형사로 쓰일 때는 주로 ‘만+시간 표현’ 꼴로 쓰인다. ‘만’과 ‘滿’이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일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아래의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자.

- (20) 가. 배 안에 승객이 *만/*만으로 10명이면(10명이 되면) 배가 떠날 수 있다.
 나. 船上乘客滿10人就可以開船走了.
 다. 쇼핑 금액이 *만/*만으로 천원이면(천원이 되면) 쿠폰 한 장을 받을 수 있다.
 르. 購物買滿千元, 可以領取購物券一張.
- (21) 가. 현재 이 차의 운행 거리는 *만/*만으로 1000km이다(1000km가 되었다).
 나. 這輛車目前行走過的距離已經滿1000公里了.
- (22) 가. 군대에 입대한 지 만/만으로 10년이 되었다.
 나. 入伍滿10年了.
 다. 동생은 올해 만/만으로 27세가 되었다
 르. 弟弟今年年滿27歲了.
- (23) 가. 어머니는 매일 대비주(大悲咒)를 *만/*만으로 100번(100번)을 읽었다.
 나. 媽媽每天念大悲咒滿100遍。
- (24) 가. 한국어 능력 시험 *만/*만으로 5급이면 서울대의 석사를 지원할 수 있다.
 나. 韓語等級考試*滿5級的話, 可以申請首爾大學的碩士。

(20)의 예문들은 ‘만’과 ‘滿’이 물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 중에서 (20가)과 (20나)은 ‘만’과 ‘滿’이 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20다)과 (20르)은 비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21)은 ‘만’과 ‘滿’이 공간량 표현, (22)는 시간량 표현, (23)은 동작량 표현, (24)는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22ㄱ)과 (22ㄴ)은 ‘만’과 ‘滿’

이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22ㄷ)과 (22ㄹ)은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예문에서 보았듯이 ‘滿’은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만’은 시간량 표현과만 쓰일 수 있다.¹⁰⁾ 그리고 ‘만’과 ‘滿’은 모두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다.

시간 표현과 함께 쓰여도 ‘만’이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이느냐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 중국어의 ‘整整’이나 ‘周(岁)’와 대응할 수 있다.

(25) ㄱ. 보고서를 만 3주 만에 완성했다.

ㄴ. 报告书整整用3周完成了。

(26) ㄱ. 만 16세 이상의 학생이면 누구나 이번 행사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ㄴ. 16周岁以上的学生, 谁都有参加此活动的资格。

(25)에서 보았듯이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만’은 ‘만/만으로’라는 식으로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이고 중국어의 ‘整整’과 대응한다. (26)에서 보았듯이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만’은 ‘만/만으로’라는 식으로 연령 표현과 함께 쓰여서 중국어의 ‘周(岁)’와 대응할 수 있다.

10) 동일한 한자어가 중국어와 한국어에 쓰이는 경우라도 한국어에서 쓰임이 훨씬 제약적인 경우가 흔하다. 이는 한자어가 한국어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어에서 차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2) ‘미만’과 ‘未滿/不滿’의 대조

‘미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未滿’과 대응하는 한자어지만 품사적 특성은 ‘未滿’과 아주 다르다. 한국어의 ‘미만’은 명사로서 굳어진 하나의 단어지만 중국어의 ‘未滿’는 아직 하지 못함을 뜻하는 단어 ‘未’와 가득 참을 뜻하는 단어 ‘滿’이 함께 쓰여서 구성된 구라고 할 수 있다. ‘未’ 대신에 ‘不’를 쓸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만’이 ‘未滿/不滿’과 대응하는 한자어라는 것을 고려하여 ‘미만’과 ‘未滿/不滿’의 대조를 진행하고자 한다.

- (27) 가. 실제 대학로에는 10명 미만의 관객을 놓고 공연하는 극장이 많다.
 나. 实际上, 大学路中有很多观众未滿/不滿10名也正常演出的剧场。
 다.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규모는 작은 편이다.
 리. 年卖出額未滿/不滿10亿元, 算是小规模。
- (28) 가. 신문 광고의 규격은 거의 모두 세로 20cm, 가로 38cm 미만이었다.
 나. 报纸广告几乎都是竖为20cm,横为未滿/不滿38cm的规格。
- (29) 가. 경력 7년 미만이면 과장 자리에 지원할 수 없는 회사 규정이 있다.
 나. 公司有规定, 工作未滿/不滿7年的话, 不能申请当科长。
 다.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모두 결핵 예방 주사를 접종해야 한다.
 리. 须给未滿/不滿6岁的儿童都进行预防结核的接种。
- (30) 가. 이 기계는 실사용이 10번 미만인데 지금 중고품으로 팔면 얼마일까?
 나. 这台机器实际使用未滿/不滿10次, 现在当成二手货能卖多少钱?
- (31) 가. 고향에서 앞으로 수질이 5급 미만인 저수지는 모두 없애자

는 정책을 세웠다.

ㄴ. 故乡出台了要将水质*未满/*不满5级的蓄水池全部清除的政策。

(27)의 예문들은 ‘미만’과 ‘未满/不满’이 물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27ㄱ)과 (27ㄴ)은 ‘미만’과 ‘未满/不满’이 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27ㄷ)과 (27ㄹ)은 비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28)은 ‘미만’과 ‘未满/不满’이 공간량 표현, (29)는 시간량 표현, (30)은 동작량 표현, (31)은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29ㄱ)과 (29ㄴ)은 ‘미만’과 ‘未满/不满’이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29ㄷ)과 (29ㄹ)은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예문에서 보았듯이 ‘미만’과 ‘未满/不满’이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차이점이 있다. 즉 ‘미만’은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未满/不满’은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다.

‘미만’과 ‘未满/不满’은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표상하는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

(32) ㄱ. 18세 미만의 국민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ㄴ. 未满/不满18周岁的公民不需要负刑事责任。

(33) ㄱ. 중국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하반기에 다소 둔화되면서 연간 성장률이 6%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ㄴ. 据中国经济研究院预测, 中国在下半年的经济成长速度多少会钝化, 年成长率还不足 (不到)/*不满6%。

(32ㄱ)에서 ‘미만’과 함께 쓰인 수량 표현은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33ㄱ)에서 ‘미만’과 함께 쓰인 수량 표현은 기준 수량 표현이

아니라 일반 수량 표현이다. (32ㄴ)의 ‘未滿/不滿’이 (32ㄱ)의 ‘미만’과 대응할 수 있고 (33ㄴ)의 ‘未滿/不滿’이 (33ㄱ)의 ‘미만’과 대응할 수 없는 것을 보면 ‘미만’과 ‘未滿/不滿’이 완전히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未滿/不滿’은 주로 어떤 조건에 미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 ‘미만’은 단순히 어떤 수량에 못 미치는 것을 강조한다. 이 수량은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일반 수량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수량이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미만’이 중국어의 ‘未滿/不滿’에 해당하고 이 수량이 일반 수량인 경우에는 ‘미만’이 중국어의 ‘不到’나 ‘小于’에 해당한다.

(3) 한국어 ‘만’과 ‘미만’의 비대칭적(非對稱) 용법

위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중국어의 ‘滿’과 ‘未滿/不滿’의 용법은 서로 대칭적이다. 즉 ‘滿’과 ‘未滿/不滿’은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여서 정반대의 의미를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량 표현들과 함께 쓰일 때는 ‘滿’과 ‘未滿/不滿’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국어의 ‘만’과 ‘미만’의 용법은 서로 대칭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주로 ‘만’과 ‘미만’의 비대칭적 용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예문 (20ㄱ)-(24ㄱ), 예문 (27ㄱ)-(31ㄱ)을 보면 ‘만’과 ‘미만’의 비대칭적 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만’과 ‘미만’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수량 표현의 종류가 다르다. 즉 ‘만’은 시간량 표현과만 쓰일 수 있지만 ‘미만’은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모두 쓰일 수 있다. 둘째, ‘만’과 ‘미만’은 수량 표현과의 위치 관계가 다르다. ‘만’은 주로 수량 표현의 앞에 있고 ‘미만’은 주로 수량 표현의 뒤에 있다. 셋째, ‘미’가 더 있는 것 말고도 ‘만’과 ‘미만’의

의미가 다르다. 예문(22ㄱ)과 (22ㄴ), 예문(25ㄱ)과 (26ㄱ)에서 보았듯이 ‘만’은 주로 일정한 시간 기준에 가득 참을 표시하지만 ‘미만’은 그냥 어떤 수량에 못 미치는 것을 강조한다. ‘미만’과 함께 쓰인 다른 표현을 보면 ‘미만’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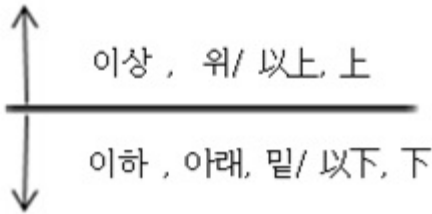
- (34) ㄱ. 1결 이상은 부농(富農), 1결 미만 50부 이상은 중농(中農)……
 ㄴ. 소주는 20도에서 35도 이하, 주정 첨가 맥주는 4도에서 25도 미만……

예문 (34ㄱ)에서 보았듯이 ‘미만’은 ‘이상’과 대칭적으로 쓰이고 예문 (34ㄴ)에서 보았듯이 ‘미만’은 ‘이하’와 비슷한 의미와 용법을 가진다. 그래서 ‘미만’의 의미는 ‘이하’와 비슷하고 ‘이상’과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방향 도식 표현 대조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 관련된 도식은 주로 ‘위-아래’ 도식이다. 이런 도식에서 기준 수치는 공간 중 하나의 수평선에 해당하고 이 수평선은 공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즉 윗부분과 아랫부분이다. 윗부분은 기준 수치보다 큰 수치에 해당하고 아랫부분은 기준 수치보다 작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표시하는 표현은 한국어의 한자어 ‘이상/이하’, 고유어 ‘위-아래’, 중국어의 ‘以上/以下’ 등이 있다.



[그림 2]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의 표현'과 관련된 방향 도식 표현

‘이상/이하’는 ‘以上/以下’에 대응하는 한자어이고 ‘위/아래’는 ‘上/下’에 대응하는 고유어이다. 그렇다면 ‘이상/이하’와 ‘以上/以下’가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동작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을까? ‘이상/이하’와 ‘以上/以下’가 서로 대응할 수 있을까? 아래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 (35) ㄱ. 논문의 글자 수를 5000자 이상/이하/*위/*아래(으)로 정해야 한다.
 ㄴ. 论文的字数要控制在5000字以上/以下/*上/*下.
 ㄷ. 축의금은 만원 이상/이하/*위/*아래(을/를) 낼 것이다.
 ㄹ. 随礼钱我打算给一万元以上/以下/*上/*下.
- (36) ㄱ. 거실의 길이를 10m 이상/이하/*위/*아래(으)로 정할 계획이다.
 ㄴ. 我打算将客厅的长度定为10米以上/以下/*上/*下.
- (37) ㄱ. 입사한 지 3년 이상/이하/*위/*아래의 직원은 이번에 승진할 기회가 있다.
 ㄴ. 进公司三年以上/以下/*上/*下的职工这次有升迁的机会。
 ㄷ. 조사에 따르면 12살 이상/이하/*위/*아래의 학생의 생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ㄹ. 调查显示12岁以上/以下/*上/*下的学生的生活能力不足。
- (38) ㄱ. 앞으로는 매주 회의를 10 번 이상/이하/*위/*아래(을/를) 해

야 한다.

ㄴ. 以后每周要开10次以上/以下/上/下的会议。

(39) ㄱ. 회원 등급이 5급 이상/이하/위/아래(이)면 추석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다.

ㄴ. 会员等级是5级以上/以下/上/下的话, 就能收到中秋礼盒。

(35)의 예문들은 ‘이상/이하’와 ‘以上/以下’, ‘위/아래’와 ‘上/下’가 물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들이다. 그중에서 (35ㄱ)과 (35ㄴ)은 ‘이상/이하’와 ‘以上/以下’, ‘위/아래’와 ‘上/下’가 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35ㄷ)과 (35ㄹ)은 비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36)은 ‘이상/이하’와 ‘以上/以下’, ‘위/아래’와 ‘上/下’가 공간량 표현, (37)은 시간량 표현, (38)는 동작량 표현, (39)은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37ㄱ)과 (37ㄴ)은 ‘이상/이하’와 ‘以上/以下’, ‘위/아래’와 ‘上/下’가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37ㄷ)과 (37ㄹ)은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예문에서 보았듯이 ‘이상/이하’와 ‘以上/以下’는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위/아래’와 ‘上/下’는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리고 ‘위/아래’가 나이 표현과 함께 쓰이는 예문도 있는데 이런 예문에서 ‘위/아래’는 주로 어떤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40) ㄱ. 언니는 저보다 두 살 위지만, 남동생은 두 살 아래다.

ㄴ. 姐姐比我大两岁, 弟弟比我小两岁。

예문 (40ㄱ)에서 보았듯이 어떤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표시

하려면 ‘위’를 쓰고 어떤 나이보다 나이가 적은 것을 표시하려면 ‘아래’를 쓴다. 예문(40ㄴ)에서 보았듯이 이런 경우의 ‘위’와 ‘아래’는 각각 중국어의 ‘大’와 ‘小’와 대응한다.

IV.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의 대조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는 어떤 수량 기준에 조금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중 언어에서는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를 표시할 때 각각 어떤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을 쓰는가?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을 쓰는 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1. 그릇 도식 표현 대조

앞에서 밝혔듯이 그릇 도식 영상 중에서 기준 수량은 그릇의 경계에 해당한다.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물체와 그 그릇의 대칭적인 위치를 그릇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것과 그릇의 경계에 못미치거나 미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는 주로 그릇의 내부와 외부에 관련된 경우이다. 기준 수량보다 많으면 그릇 외부에 위치하는 것에 해당되고 외부와 관련된 단어인 ‘밖’과 ‘외’로 표시되며 기준 수량보다 적으면 그릇 내부에 위치하는 것에 해당되고 내부와 관련된 단어인 ‘안’과 ‘내’로 표시된다. 따라서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에는 주로 ‘내외’

와 ‘안팎’¹¹⁾을 쓴다. 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그릇 도식 표현이 없다.¹²⁾ 그렇다면 ‘내외’와 ‘안팎’은 각각 어떤 수량 표현과 함께 쓸 수 있는가?

- (41) 가. 원고지 200자 내외/안팎(으)로 글을 써 오시오.
 나. 10만원 내외/안팎의 비용을 들여 여행을 다녀왔다.
- (42)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170cm 내외/안팎이다.
- (43) 가. 한 시간 내외/안팎(으)로 끝마쳐라.
 나. 삼십 내외/안팎(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내 옆에 앉았다.
- (44) 이 신발은 10번 *내외/*안팎/정도 신었는데 지금 중고품으로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 (45) 1,000 KW급 *내외/안팎 규모의 발전소가 준공되었다.

(41)의 예문은 ‘내외’와 ‘안팎’이 물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41가)은 ‘내외’와 ‘안팎’이 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41나)은 ‘내외’와 ‘안팎’이 비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42)는 ‘내외’와 ‘안팎’이 공간량 표현, (43)은 시간량 표현, (44)는 동작량 표현, (45)는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43가)은 ‘내외’와 ‘안팎’이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43나)은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예문에서 보았듯이 ‘안팎’은 물량, 공간량, 시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내외’는 물량, 공간량, 시간량 표현과는 함께 쓰일 수 있고 등급량 표현과는 함

11) 현대 한국어의 ‘안’에 해당하는 중세 한국어 형태는 ‘얹’이었다. 현대 한국어에 나타나는 ‘안팎’은 중세 한국어에서는 ‘얹’이 ‘밖’(중세 한국어의 경우는 ‘뵈’)과 결합한 화석형이다.

12) 중국어의 경우는 뒤에서 언급할 것인바 ‘左右’, ‘上下’가 있지만, 그릇 도식 표현이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 언어 공간 은유 수량 표현에는 공간 은유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44)에서 볼 수 있듯이 동작량의 경우 ‘내외’나 ‘안팎’이 모두 자연스럽게 않아 ‘정도’가 주로 쓰인다.

2. 방향 도식 표현 대조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은 불확정한 경우를 표현할 때 한·중 언어는 각각 다른 방향 도식 표현을 쓴다. 한국어에서는 주로 ‘앞’과 ‘뒤’를 표시하는 한자어 ‘전후’를 쓰지만¹³⁾ 중국어에서는 주로 ‘좌측’과 ‘우측’을 표시하는 ‘左右’와 ‘위’와 ‘아래’를 표시하는 ‘上下’를 쓴다.

(46) ㄱ. 한국은 대도시 인구가 100만 명 전후일 때,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ㄴ. 쌀값이 하락해서 현재 1킬로그램에 3,000원 전후이다.

(47) 학생 기숙사의 침대 사이즈는 200cm X 120cm 전후이다.

(48) ㄱ. 대개 6시간쯤 되면 일어나는 것이 보통 급성장염이고, 20시간 전후 일어나는 것이 전염병이다.

ㄴ. 그는 30세 전후로 보인다.

(49) 스트레칭을 하루에 10번 전후로 했다.

(50) 동생의 한국어 능력은 지금 *5급 전후이다.

(46)의 예문들은 ‘전후’가 물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46ㄱ)은 ‘전후’와 ‘전후이다’가 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46ㄴ)은 ‘전후’와 ‘전후이다’가 비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47)은 ‘전후’와 ‘전후이다’가 공간량 표현, (48)은 시간량 표

13) 한국어에는 ‘전후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100만 명을 전후하다’처럼 쓰여서 수량 표현 명사나 명사구 뒤에 직접 연결하는 ‘左右’나 ‘上下’와 통사적 차이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후하다’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현, (49)는 동작량 표현, (50)은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48ㄱ)은 ‘전후’가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48ㄴ)은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예문에서 보았듯이 ‘전후’는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등급량 표현과는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럼 중국어에서 ‘좌측’과 ‘우측’을 표시하는 ‘左右’와 ‘위’와 ‘아래’를 표시하는 ‘上下’가 각각 어떤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을까?

- (51) ㄱ. 1989年的人口调查结果, 在俄罗斯领土上的中国人总数有5000人左右/上下。
- ㄴ. 80年代, 中国普通家庭的年收入才500美元左右/上下。
- (52) 宿舍住宿条件普遍很差, 一个20平方米左右/上下的潮湿阴暗的房间一般都住20个左右的学生。
- (53) ㄱ. 在过去30年左右/上下的时间里, 中国的经济得到了飞速的发展。
- ㄴ. 智力在11、12岁以前增长较快, 以后较慢, 到了20岁左右/上下达到高峰。
- (54) 协调意见需要多次会谈, 可能是三四次, 也可能是十次左右/上下。
- (55) 居民房如果不安防震柱, 3级左右/上下的地震就足以让房屋倒塌。

(51)의 예문들은 ‘左右’와 ‘上下’가 물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51ㄱ)은 ‘左右’와 ‘上下’가 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51ㄴ)은 ‘左右’와 ‘上下’가 비개체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52)는 ‘左右’와 ‘上下’가 공간량 표현, (53)은 시간량 표현, (54)는 동작량 표현, (55)는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그중에서 (53ㄱ)은 ‘左右’와 ‘上下’가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고 (53ㄴ)은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예문에서 보았듯이 ‘左右’와 ‘上下’는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모두 함께 쓰

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를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주로 외부나 내부를 표시하는 ‘내외’와 ‘안팎’이라는 그릇 도식 표현을 쓰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그릇 도식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앞’과 ‘뒤’를 표시하는 한 자어 명사 ‘전후’라는 방향 도식 표현을 쓰지만 중국어에서는 주로 ‘좌측’과 ‘우측’을 표시하는 ‘左右’ 방향 도식 표현과 ‘위’와 ‘아래’를 표시하는 ‘上下’ 도식 표현을 쓴다. 14)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를 표현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쓰는 공간 은유 표현이 무엇인지, 각각 어떤 수량 범주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는지를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2> 한·중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와 관련된 공간 은유 표현

공간 은유 수량 표현		한국어			중국어	
		전후	안팎	내외	左右	上下
물 량	개체량	○	○	○	○	○
	비개체량	○	○	○	○	○
공간량		○	○	○	○	○
시 간 량	기간	○	○	○	○	○
	연령	○	○	○	○	○
동작량		○	×	×	○	○
등급량		×	○	×	○	○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대량 표현에서의

14) 중국어에는 ‘앞’과 ‘뒤’의 뜻을 표시하는 ‘前’와 ‘后’가 이루는 ‘前后’라는 단어도 있다. ‘前后’는 흔히 시점 등 시간 표현에 붙어서 ‘어떤 시점의 전이나 후’라는 의미를 표시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지는 ‘양(예를 들어서, 이틀, 2년 등)’을 표시할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前后’를 제외하고자 한다.

공간 은유 표현이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와 중국어는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 같은 공간 은유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공간 은유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두 언어가 상대량(相對量) 표현을 표시할 때 왜 같은 공간 은유 표현도 쓰고 또 왜 다른 공간 은유 표현도 쓸까? 같은 공간 은유를 쓰는 이유의 하나는 언어 접촉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같은 공간 은유 상대량(相對量) 표현이 쓰이는 경우는 대부분이 한자어라는 사실을 보면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언어의 접촉(language contact)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문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의 언어 표현 방식과 언어 습관의 영향을 받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 공간 은유 상대량(相對量) 표현 중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어 고유어 공간 은유 상대량(相對量) 표현이 중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유 방식이나 언어적인 습관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국 사람들은 공간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과는 다른 인식과 인지적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어와 다른 공간 은유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를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주로 외부나 내부를 표시하는 ‘내외’와 ‘안팎’이라는 그릇 도식 표현과 ‘앞’과 ‘뒤’를 표시하는 한자어 명사 ‘전후’라는 방향 도식 표현을 쓴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그릇 도식 표현을 쓰지 않고 주로 ‘좌측’과 ‘우측’을 표시하는 ‘左右’ 방향 도식 표현과 ‘위’와 ‘아래’를 표시하는 ‘上下’ 방향 도식 표현을 쓰는 것이다.

V. 결론: 요약과 교육적 함의

본 연구는 한·중 언어의 상대량(相對量) 표현 중 공간 은유 표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조하였다. 공간 은유 표현은 모두 공간과 관련된 영상 도식의 사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와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은 불확정한 경우’의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교수-학습, 한국어권 학습자의 중국어 교수-학습과 같은 제2언어의 학습과 교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와 관련된 그릇 도식 표현은 그릇 외부와 내부와 관련된 표현과 그릇 경계에 미치거나 못 미치는 경우와 관련된 표현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릇 외부와 내부와 관련된 표현은 주로 ‘이외/이내’와 ‘以外/以內’, ‘밖/안’, ‘외/내’와 ‘內/外’, ‘开外’ 등이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 은유 표현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수량 범주가 각각 무엇인지도 밝혔다. 즉 ‘이내’와 ‘以內’는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었지만 ‘이외’와 ‘以外’는 이러한 수량 표현들과 함께 쓰일 수 없었다. 또 ‘내’와 ‘內’가 물량, 시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공간량, 동작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다. 그중에서 ‘내’와 함께 쓰인 시간량 표현은 기간량 표현과 한자어 연령 표현이다. ‘안’은 물량, 시간량(기간량과 고유어 연령 표현),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고 ‘밖’과 ‘外’는 등급량 표현과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외’는 그 어느 표현과도 함께 쓰일 수 없었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开外’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开外’에는 공간어 ‘外’라는 형태소가 있어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모두 함께 쓰일 수 있었다.

그릇 경계에 미치거나 못 미치는 경우와 관련된 표현은 주로 한국어의 ‘만’과 ‘미만’, 중국어의 ‘滿’과 ‘未滿’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과 ‘滿’, ‘미만’과 ‘未滿’을 서로 대조해 보았다. ‘滿’은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었지만 ‘만’은 시간량 표현과만 쓰일 수 있었다. 시간 표현과 함께 쓰여도 ‘만’은 기간 표현과 함께 쓰이느냐 연령 표현과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 중국어의 ‘整整’나 ‘周(岁)’와 대응하였다. 그리고 ‘미만’과 ‘未滿/不滿’은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었지만 등급량 표현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미만’은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未滿/不滿’은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었다. 또 ‘未滿/不滿’과 ‘미만’은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었지만 표시하는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 차이점이 있었다. ‘未滿/不滿’은 어떤 조건에 미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 ‘미만’은 단순히 일정한 수량에 미달하는 것을 표시한다. 그 수량 표현은 기준 수량 표현일 수도 있고 일반 수량 표현일 수도 있었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만’과 ‘미만’의 비대칭적(非对称) 용법도 밝혔다. 첫째, ‘만’은 시간량 표현과만 쓰일 수 있었지만 ‘미만’은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표현과 모두 쓰일 수 있었다. 둘째, ‘미만’은 수량 표현 뒤에 쓰이는 데 반해 ‘만’은 수량 표현 앞에서 쓰였다. 셋째, ‘미만’은 ‘이상’과 대칭적으로 쓰였고 ‘이하’와 비슷한 의미와 용법을 지녔다.

방향 도식 표현 대조 부분에서는 ‘이상/이하’와 ‘以上/以下’, ‘위/아래’와 ‘上/下’가 있었다. ‘이상/이하’와 ‘以上/以下’가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는데 반해 ‘위/아래’와 ‘上/下’는 물량, 기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었다. 그리고 ‘위/아래’는 주로 어떤 연령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을 표시하였다.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에서의 대조 부분에서는 한국어에서 주로 ‘내외’와 ‘안팎’을 쓰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그릇 도식 표현이 없었다. 그리고 ‘안팎’은 물량, 공간량, 시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었지만 ‘내외’는 물량, 공간량, 시간량 표현과 쓰일 수 있었고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를 표현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각각 다른 방향 도식 표현을 썼다. 한국어에서는 주로 ‘앞’과 ‘뒤’를 표시하는 한자어 명사 ‘전후’를 썼지만 중국어에서는 주로 ‘위’와 ‘아래’를 표시하는 ‘上下’와 ‘좌측’과 ‘우측’을 표시하는 ‘左右’를 썼다. ‘전후’는 모두 물량, 공간량, 시간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었지만 행위량 표현이나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는 없었다. ‘左右’와 ‘上下’는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모두 함께 쓰일 수 있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간 은유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교수-학습, 한국어권 학습자의 중국어 교수-학습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줄 수 있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은유 상대량(相對量) 표현을 적극적으로 교수-학습에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어의 ‘만’과 중국어의 ‘滿’의 대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한자어가 쓰인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범위가 다를 경우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교수-학습하여야 한다. 셋째, 불확정적인 표현에서의 그릇 도식이 한국어에서는 ‘내외’나 ‘안팎’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을 한국인과 중국인의 사유 방식이나 언어적 습관과 관련하여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교수-학습하여야 한다. 넷째, 불확정

적인 표현에서의 방향 도식이 한국어에서는 전후'가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左右'나 '上下'가 쓰이는 것처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인과 중국인의 사유 방식이나 언어적 습관과 관련하여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교수-학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대량(相對量) 표현의 미시적인 대조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시적인 대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공간 은유를 다루면서도 복합적인 은유의 양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은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대조 언어학적 연구가 축적된다면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런 연구가 축적되어 한국인과 중국인의 사유 방식이나 언어적 습관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혜연(2013), 「국어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안팎'과 '내외'의 의미와 용법의 비교 연구」, 『언어와 언어학』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pp.23-54.
 손평효(2012), 「공간말 '위', '아래'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 의

* 이 논문은 2016. 11. 15. 투고되었으며, 2016. 11. 22. 심사가 시작되어 2016. 12. 4.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6. 12. 6.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미학회, pp.291-317.
- 이홍매(2010), 「'이상', '이하'의 의미 연구: 범위 한정 의 뜻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의미학회, pp.229-257.
- 임지룡(1997), 「영상 도식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어문학』 60, 한국어문학회, pp.189-211.
- 채옥자(2013), 「한국어의 수량범주와 그 표현 양상」, 『국어학』 68, 국어학회, pp.225-251.
- 최이평혜이(2012), 「공간 은유의 구조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한국어의 미학』 37, 한국어 의미학회, pp.291-308.
- 方经民(1987), 「现代汉语方位参照聚合类型」, 『语言研究』 13, 语言研究编辑部, pp.3-13.
- 李宇明(2000), 『汉语量范畴研究』, 华中师范大学出版社.
- 劉性銀(2006), 「中國語와 韓國語의 空間概念 隱喩에 關한 一考」, 『동아인문학』 9, 동아인문학회, pp.299-319.
- 邢福义(2010), 「'X以上'格式在现代汉语中的演进」, 『语言研究』 30, 语言研究编辑部, pp.1-10.
- 曾传祿(2005), 「里、中、内、外'方位隐喻的认知分析」, 『贵州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132, 贵州师范大学学报编辑部, pp.104-107.
- 张豫峰(2004), 「'X+前后/左右/上下'的分析」, 『语言教学与研究』 3, 语言教学与研究编辑部, pp.30-36.
- Lakoff, George & Johnson, Mark(2003), *Metaphors We Live by*,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국문초록

한·중 상대량(相對量) 표현에서의 공간 은유 표현 대조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을 중심으로—

후효단 · 구분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어떤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량(相對量) 표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의 언어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의 언어 표현’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러한 상대량(相對量) 표현은 대부분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준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서의 표현’에는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이 있다. 이런 표현은 흔히 대칭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그릇 도식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릇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외/이내’와 ‘以外/以內’, ‘밖/안’, ‘외/내’와 ‘外/內’, 그리고 ‘開外’가 있다. 또 하나는 그릇의 경계에 못 미치는 것과 그릇의 경계에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과 ‘滿’, ‘미만’과 ‘未滿/不滿’등이 그것이다. 두 언어에서 같은 방향 도식 은유 표현은 ‘이상/이하’와 ‘以上/以下’, ‘위/아래’와 ‘上/下’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 은유 표현들이 제각기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등급량 표현과 어울릴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한·중 두 언어에서 ‘기준 수량보다 많은 적든 불확정한 경우의 언어 표현’에서 쓰이는 공간 은유 표현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에서 쓰이는 그릇 도식 표현은 ‘내외’와 ‘안밖’이지만 중국어에는 이런 그릇 도식 표현이 없다. 한국어에서 쓰이는 방향 도식 표현은 주로 앞과 뒤를 표시하는 ‘전후’지만 중국어에서 쓰인 방향 도식 표현은 왼쪽과 오른쪽을 표시하는 ‘左右’와 위와 아래를 표시하는 ‘上下’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물량, 공간량, 시간량, 행위량, 정

도량, 등급량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같은 공간 은유 상대량(相對量) 표현이 쓰이는 것은 언어의 접촉(language contact)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공간 은유 상대량(相對量) 표현이 쓰이는 것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의 사유 방식이나 언어적인 습관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그릇 도식 표현과 방향 도식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작업은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교수-학습, 한국어권 학습자의 중국어 교수-학습과 같은 제2언어의 학습과 교수에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상대량(相對量) 표현, 그릇 도식, 방향 도식, 한·중 언어 대조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Metaphorical Expressions for Spatial Orientation in the Relative Quantity Category

—Expressions of Container Schema and Orientational Schema—

Hou, Xiaodan · Koo, Bon-kwan

In Korean and Chinese, expressions denoting quantit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which may be described as “expressions of quantities larger or smaller than the base value” and “expressions of quantities that fluctuates around the base value”. In both languages, most of those two usages take the form of metaphorical expressions of the container and orientational schemas.

For expressions of quantities larger or smaller than the base value, Korean and Chinese show similarity between expressions of the container and orientational schemas, which usually take symmetrical forms in both languages. There are two such types of expressions of the container schema. First, expressions in which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container are significant, such as “이외[i-oe]/이내[i-nae]” and “以外[yiwai]/以內[yinei]”, “밖[bakk]/안[an]”, “외[oe]/내[nae]” and “外[wai]/內[nei]”, “开外[kaiwai]”; the others are expressions in which the container boundary is significant, such as “만[man]” and “滿[man]”, “미만[mi-man]” and “未滿[weiman]/不滿[buman]”. Both languages are also similar in orientational expressions such as “이상[i-sang]/이하[i-ha]” and “以上[yishang]/以下[yixia]”, “위[wi]-아래[a-rae]” and “上[shang]/下[xia]”. This article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sage of these counterpart spatial metaphorical expressions in the two languages, when they occur with expressions of material quantity, amounts of

substance, spatial quantity, time capacity, amounts of behavior and degrees.

Korean and Chinese are different in spatial metaphorical expressions of quantities larger or smaller than the base value. In Korean, there are metaphorical expressions of the container schema, such as “내외[na-oe]” and “안팎[an-bakk]”. However, there are no corresponding expressions in Chinese. The major orientational metaphorical expression in Korean is “전후[jeon-hu]” referring to front or back, and in Chinese the counterparts are represented as “左右[zuoyou]”, which means “left and right”, and “上下[shangxia]”, which means “up and down”.

This article analyzes whether or not these abovementioned expressions can occur with expressions of material quantity, amounts of substance, spatial quantity, time capacity, amounts of behavior and degrees. This paper claims that language contact can account for similarities in spatial metaphorical expressions in both languages, whereas uniqueness in people’s ways of thinking can help us interpret the differences. The present comparative study can prove significant for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for Chinese students, as well as teaching and learning of Chinese for Koreans.

[Key words] Expressions of Relative Quantity, Container Schema, Orientational Schema, Korean-Chinese Comparison